대행 선사는 우주법계를 어떻게 보았을까

대행선연구원, 12월 14일 계절발표회 개최

'기세간', 유정 담긴 세상을 의미
대행 선사 보인 '기세간' 관점 조명
"대행 선사, 세상을 물질세계 아닌 정신과 연결된 유동적 세계 인식"
대행–에크하르트 비교 연구 발표

안양=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기세간(器世間)'은 '유정세간(有情世間)'과 함께 불교의 우주론·세계관을 설명해주는 개념이다. '유정세간'이 생명을 가진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계라면, '기세간'은 유정들이 담겨있는 환경과 국토를 포함한 모든 우주법계를 의미한다. 불자들이 알고 있는 '삼천대천세계' '불국토' 등이 기세간에 해당된다.

한마음주인공 관법으로 생활불교를 대중들에게 전했던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가 우주법계를 어떻게 보고 설했는지를 조명하는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 스님)은 지난해 12월 14일 안양본원 3층에서 제21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계절발표회에서 오진영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은 '묘공 대행의 기세간에 대한 관점 고찰'을 통해 대행 선사의 기세간 관련 관점을 조명했다.

기세간에 대한 설명은 소승·대승경전 곳곳에서 존재하는데, 초기 부파불교의 〈대루탄경〉 〈장아함경〉과 대승불교의 〈대방광불화엄경〉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삼천대천세계'에 대한 방대한 경전의 묘사를 살피면 "우주의 시작과 끝, 삼계의 중생 등 모든 존재가 광대하고 기나긴 시간을 누린다 하더라도 인연이 다하면 스러지듯 기세간은 무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게 오 연구원의 설명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기세간을 설한 이유는 이 세상이 '업에 의해 구성된 환경임을 깨달아 집착과 탐욕을 줄이고 지혜를 증진하는 수행을 이루길' 독려하기 위해서다. 대행 선사의 기세간 법문도 이 같은 연유로 이뤄졌다.

오 연구원에 따르면 대행 선사는 기세간 관련 법문에 있어 우주의 구성과 생성 등을 의인화 방식을 통해 알기 쉽게 설하고 있다. 실제, 대행 선사는 우주 생성에 있어서 불성이 낳은 우주를 '성주'라고 하고, 성주는 3아들에게 3우주를 맡긴다. 이후 첫째 아들은 7형제를, 둘째 아들은 3형제를, 마지막 아들은 5형제를 낳았는데, 그중 둘째 아들의 3형제는 다시 7형제를 낳는다.

여기서 '아들'은 불성의 기능을 상징하며 '3명'은 다양성과 함께 '삼신(三身)'을 표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오 연구원은 "불성은 고정된 실체가 아닌 공의 도리로 수많은 모습으로 화현하게 되는데, 이는 '7형제, 3형제, 5형제'로 나타난 것"이라며 "불성을 '아버지와 아들'로 상징한 것은 모든 존재의 근본인 불성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툴 수 있지만,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불이(不二) 사상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은 12월 14일 안양본원 3층에서 제21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오진영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이 '묘공 대행의 기세간에 대한 관점 고찰'을 발표하는 모습.

또한 대행 선사는 기세간의 근원을 마음(불성)이라고 정의내리며, 하나의 마음이 전체 세계를 포함하고 전체 세계가 마음으로 연결됐음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기세간을 고정된 세계가 아니라 중생의 마음 작용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동적 세계로 본다.

오 연구원은 "기세간과 관련해 이처럼 방대하게 설법하신 스님은 대행 선사가 유일하다"며 "선사의 법문에 따르면 기세간은 단순한 물질적 환경이 아니라 중생이 마음을 어떻게 쓰는지를 깨달아 가는 수행의 장이자, 자신의 세계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이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실천의 장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생은 부처와 다른 몸이 아니니 자신과 같이 기세간을 생각해보고 보존해야 함을 대행 선사는 역설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내가 곧 부처이자 우주라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법계 전체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실천을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권서용 부산대 한국민족연구소 연구교수는 '선사 대행과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종교사상'를 통해 대행 선사와 중세 신비주의 철학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1260~1323)의 종교사상을 비교 고찰했다.

한편, 2023년부터 시작한 한마음선원 지원 소개에서는 포항지원장 혜문스님이 포항지원 도량 현황과 불사 과정을 소개했다.

팔만대장경 디지털 DB 사업 예산 '100억' 편성

국가유산청 2025년 예산 확정
총 216억 증원돼 1조 3875억원
국가유산 가치 발굴 사업 반영

국가유산청이 해인사 팔만대장경의 디지털 자료 목록(DB)화 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하면서 내년부터 해당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2월 17일 "2025년도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올해(1조 3659억원)보다 216억 증액된 1조 387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체계 정립 후 첫 예산 편성으로 국가유산 가치 발굴과 확산, 국가 경제와 지역사회 기여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키로 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했다.

회계·기금별 예산규모로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1조2440억원으로 올해(1조 2067억원)보다 373억원(3.1%) 증액됐다. 반면 국가유산보호기금은 1435억원으로 올해(1592억원)에 비해 157억원(10.9%) 감액된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국가유산 보수정비 5299억원 △국가유산 정책 2770억원 △문화유산 1332억원 △자연 및 무형유산 669억원 △교육·연구·전시 1149억원 △궁능원 관리 1431억원 등의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팔만대장경 디지털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이 포함됐다. 올해 13억원이던 해당 사업 예산은 87억원이 증액돼 총 100억원으로 편성됐다. 세계기록유산인 팔만대장경판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학술연구와 교육을 통해 대중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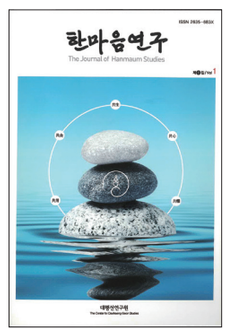
'팔만대장경 디지털 자료 목록(DB) 구축' 사업은 팔만대장경 중 인경이 이뤄지지 않았던 경판을 인경한 뒤, 종합적인 디지털 자료를 목록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판을 정밀하게 기록하고 보존상태를 조사하는 기초조사와 인경·인경본 스캔을 거쳐 누가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웹서비스로 제공될 계획이다. 서비스는 이르면 2027년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국가유산 보수정비 사업은 126억이 증원돼 5299억원, 고도 보존 및 육성 사업은 49억이 증액돼 251억원, 매장유산 유존유적 정보 고도화 사업은 30억 증원돼 60억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김내영 기자

대행선연구원 〈한마음연구〉 KCI 등재

한국연구재단 등재 결과 발표
등재후보지 선정 2년만에 등재



KCI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대행선연구원 학술지 '한마음연구' 제1집.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 산하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 스님)이 발간하는 학술지 〈한마음연구〉가 2024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에서 'KCI 등재학술지'로 선정됐다. 2022년 11월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이후 2년 만의 쾌거다.

〈한마음연구〉는 2018년 연 2회 발행을 시작해 현재까지 제13집이 발간됐다. 이번 등재지 선정으로 2024년 2월과 8월에 발행한 〈한마음연구〉 제12집과 제13집에 실린 모든 연구성과는 등재지에 게재된 것으로 소급 적용된다.

대행선 연구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한마음연구〉가 등재지로 선정됨에 따라 대행선 관련 연구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뿐 아니라 대행선을 널리 선양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행선연구원장 혜선 스님은 "이번 등재지 선정은 〈한마음연구〉 창간호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연구자들의 참여와 연구원 학술운영위원과 편집위원의 노고 덕분이다. 〈한마음연구〉의 모든 관계자와 한마음선원 사부대중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한마음연구〉가 '대행선'을 무궁무진 뻗어나가게 하는 알찬 학술지가 되도록 가일층 정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중일 기자

사찰음식의 매력, 60초 영상에 담아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12월 19일
'숏폼 공모전' 대상에 보선 스님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수여식도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 문화사업단)이 지난해 12월 19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화엄실에서 '제1회 사찰음식 숏폼 영상 공모전 시상식'과 '제15회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자격증 수여식'을 개최했다.〈사진〉

숏폼 영상 공모전은 대중에게 사찰음식을 홍보하고 올바른 식습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기획됐다.

출품작 59편 중 11편이 선정됐으며, 대상은 보선 스님(직할교구 수월암)의 '삼소식 캠페인 송', 최우수상은 TIME4Buddhism 팀의 '글로벌한 삼소식'과 신상미 씨의 '사찰음식 삼소식 다이어트'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자연식 팀의 '고독한 미식가 with 사찰음식'과 장다해 씨의 '사찰음식과 삼소식', 사찰 명상가 팀의 '자연의 맛을 담다: 삼소식 산채 비빔밥'이 받았다. 특히 대상을 받은 보선 스님의 '삼소식 캠페인송'은 AI를 활용한 노래 및 영상을 60초 분량으로 제작해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스님의 '삼소식 캠페인송'은 사찰음식 공식 SNS(인스타그램 @korean_templefood/유튜브 @KoreanTemplestayTempleFood)에 게재됐으며, 향후 다른 수상작도 올라갈 예정이다.

이날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자격증 수여식도 진행됐다. 이번 자격시험에는 총 72명이 응시했으며, 31명이 전문조리사 자격을 취득했다.

앞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만당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사찰음식은 단지 한정된 공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어디서든 누릴 수 있는 매개체로 자리 잡았다"며 "오늘 수여식과 시상식을 통해 사찰음식의 미래가 더욱 빛나길 기원하며 여러분의 활약으로 사찰음식의 가치와 아름다움이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재 기자

